

[크립토 전략] 비트코인 시장분석

2026. 7. 4.

이제는 비트코인을 다시 담아야 할 때

비트코인 60K, 장기 투자자가 행동해야 할 가격입니다

Author: Ricky Sohn

Email: Bluelakehq@gmail.com | Mobile: +82-10-5109-4049

Relevant Links: www.lightwoodcap.com, link.yummycoin.xyz

Summary | 핵심 요약

- 비트코인 6만달러에는 고금리·강달러·ETF 유입 둔화 등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 파생시장 과열은 해소됐고, MVRV 는 약 1.2x 로 저평가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온체인·파생 지표 모두 급락과 청산을 거친 이후의 재정비 국면을 시사합니다.
- 완벽한 바닥을 맞히는 것보다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인정하는 투자자라면 비중 확대를 검토할 만한 구간입니다.

I. 서론: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6만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 폭은 약 -55%. 금리와 달러는 여전히 부담이며, 현물 ETF 자금 흐름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차트가 회복된 뒤에야 투자에 나서지만, 그때는 대개 가격 매력이 사라진 뒤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리스크 대비 충분히 매력적인가**”입니다.

필자는 **6만달러 부근이 완벽한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 투자자가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할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이제 금리, 달러, 기관 자금, 파생시장, 온체인 데이터가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자산인 만큼, **거시경제·수급·파생시장·온체인·기술적 지표** 다섯 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II. 거시경제: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높은 실질금리와 강달러는 현금흐름이 없는 비트코인에 분명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악재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가”입니다. 고금리, 강달러,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기관 자금 유입 둔화가 모두 겹친 상황에서 형성된 지금의 6만달러는 낙관이 아니라 **비관이 만든 가격**입니다.

전쟁발 물가상승 압력, 금리 상승, 견조한 고용까지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변수들은 상당 부분 현실화됐습니다. 현재는 악재가 새롭게 등장하는 국면이라기보다, 이미 알려진 악재가 가격에 반영된 국면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편안해진 뒤에는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편한 가격일 때 장기 기대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III. 수급: 자금이 빠질 때 만들어진 가격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2024년 이후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현물 ETF였습니다. 하버드대 기금의 IBIT 편입,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비트코인 ETF 노출 사례에서 보듯, **비트코인은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검토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조정의 배경에는 ETF 유입 둔화와 일부 유출이 있지만, 뒤집어 보면 지금의 6만달러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시 유의미하게 순유입으로 전환된다면, 구조적인 기관 수요가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1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가격 추이 (주봉 기준)



자료: TradingView

여기에 구조적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트레티지(NASDAQ: MSTR)로 대표되는 **DAT, 즉 Digital Asset Treasury**입니다. 채권 발행과 자본 조달로 비트코인을 지속 축적하는 이 구조는 비트코인이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올라가는 자산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TF가 ‘투자 접근성’을 열었다면, DAT는 ‘보유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이 약해진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새로운 수요층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림 2 MSTR 비트코인 매수 타임라인



자료: Strategy.com

IV. 파생시장: 레버리지 정리는 매수 기회를 만듭니다

급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락 그 자체보다 레버리지 청산의 연쇄입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가”가 아니라 **과열이 얼마나 정리됐는가입니다**. 상승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았던 편딩비는 최근 조정 과정에서 빠르게 정상화됐고, 일부 구간에서는 중립 또는 음수로 전환됐습니다. 미결제약정도 고점 대비 감소하며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림 3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액 추이



자료: CryptoQuant

지금의 파생시장은 “과열된 상승 초입”이 아니라 **“과열이 해소된 이후의 재정비 구간”**에 가깝습니다.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시장은 변동성은 남아 있어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며, 이런 환경에서 형성된 가격은 현실적인 수급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V. 온체인: MVRV 1.2, 과열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취득가와 미실현 손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지표인 MVRV는 시가총액을 실현가치로 나눈 값으로, 평균 취득가 대비 현재 가격 수준을 보여줍니다. 2026년 7월 초 기준 비트코인의 MVRV는 약 1.2, 즉 시장 평균 매입가 대비 약 20% 위에 있는 상태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 상승장 고점: MVRV 3~4 이상, 대부분이 큰 미실현 이익을 보유한 과열 신호
- 상승 초입·중간: 1.5~2.5, 시장이 낙관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구간
- 하락장 바닥·극단적 공포: 1 이하, 평균 매입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투매 구간

이 기준에서 현재 1.2는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과열과는 거리가 먼 ‘저평가에 가까운 중립 구간’입니다. 직전 고점에서 MVRV가 2 이상까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하면, 미실현 이익이 상당 부분 정리된, 과열이 한 번 식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기대수익률이 다시 개선되는 구간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그림 4 비트코인 MVRV 추이와 역사적 구간 비교



자료: CryptoQuant

VI. 기술적 지표: 바닥 확인보다 기대수익률입니다

첫째, 6만달러 부근은 **200주 이동평균선**과 가까운, 과거 사이클마다 큰 변곡점을 만들어온 구간입니다.

둘째, 5만8000달러는 **2024년부터 여러 차례 매수세가 유입된 강한 지지** 구간입니다.

셋째, **상단 저항**. 12만6000달러 고점 이후의 하락 추세선은 아직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래에서는 장기 지지를 테스트하고 위에서는 추세 저항에 막힌 구조로, 단기 방향성은 불확실하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률은 유리해지는 구간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림 5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 TradingView

VII. 결론: 확신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는 아직 부담이고 ETF 수급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반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기회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편안한 가격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가격을 사는 것입니다. 단 번에 모든 자금을 넣자는 뜻은 아닙니다. 거시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ETF 순유입 전환과 파생시장·온체인 과열 여부를 점검하며, 기술적 지지선을 기준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60k, **편안한 가격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자가 행동해야 할 가격입니다.**

용어 설명

MVRV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실현가치로 나눈 온체인 지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취득가 대비 현재 가격 수준을 보여줍니다.

펀딩비(Funding Rate)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포지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고받는 비용. 지속적으로 높으면 롱 쏠림, 즉 과열 신호로 해석됩니다.

DAT(Digital Asset Treasury) 기업이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구조. 스트레티지(구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대표 사례입니다.

Compliance Notice

본 기고문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가상자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 판단의 근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된 데이터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자산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자는 본 기고문에서 다루는 자산에 대해 [보유 / 미보유] 상태이며, 이해상충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겸직 등 공시 사항 기재]. 본 기고문의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저자가 소속된 어떠한 기관의 공식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